

14일 Market Index			
코스피	6977.94	코스닥	864.65
(+164.60)		(+3.28)	
금리	3.796	환율	1412.25
(+0.015)		(-6.05)	

초과수익 내고도 상장폐지 잇따라 액티브ETF ‘상관계수 0.7%’ 족쇄

타임폴리오 ETF 1년 수익 36.06%
상관계수 0.68%로 내일 상장폐지
지난달도 상관계수 미달 4종 상폐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규제
업계, 개선 필요성 공감대 형성”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
규제를 충족하지 못해 상장 폐지되는 액
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사례가 잇따르
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TIME(타임)미국배당다우존스
액티브 ETF가 상관계수 미달로 오는 18일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19일 상장 폐지된단
고 예고했다. 지난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액티브 ETF 4종이 상관계수 미달로 무더
기 상장 폐지 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상관계수란 말 그대로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다. 1에 가까울
수록 같은 방향, 0은 관련 없음, -1은 반
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현재 액

티브 ETF는 3개월 이상 상관계수 0.7 미
만이 지속되면 상장 폐지된다. 패시브 E
TF(상관계수 요건 0.9)보다는 운용사 재
량을 쥐 초과수익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도, 해당 액티브 ETF가 상품 정체성에서
벗어나 운용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
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문제는 최근 상장 폐지되는 액티브 E
TF들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는 최근 1년 수익률(14일 기준)이
36.06%로 비교지수보다 9.42%포인트 초
과 성과를 달성했다. 앞서 상장 폐지된 한
투운용의 액티브 ETF 4종도 마찬가지
다. 특히 ACE 애플밸류체인액티브는 비
교지수 대비 30%포인트 가까운 초과성
과를 내기도 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자수 복제율을 높였지만 14일까
지 기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상관계수 요건 미달을 확인
한 즉시 초과수익 포지션 비중을 축소하

는 등 조치에 나섰다”며 “기초지수의 일평
균 변동폭이 매우 낮아 과거의 저장관 구
간이 3개월 안에 완전히 희석되기에는 시
간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높은 운용 성과를 거뒀음에도 상관계
수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액티브 ETF가
늘어나면서 운용사와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김성훈 DS자산운용 대표는 지난달 기
자간담회에서 “상관계수 규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업
계에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보수적
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
소형 운용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
사와 경쟁이 어려운 중소형 운용사들은 액
티브 ETF로 차별화된 운용
전략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호남의 선택’ 민주당 당대표에 김민석

이재명정부 뒷받침 호소가 ‘주효’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지속 강조
전당대회 이후 갈등 해결 속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8·17 전
당대회에서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대의
원·권리당원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 정청래·송영길 후
보를 따돌리고 당 대표에 선출됐다. 김 후
보는 민주당의 텃밭이자 전체 권리당원
의 3분의1이 있는 호남 경선에서 크게 이
기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는데, 이는 호
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는 당정관계를 구축하겠
다고 공언한 김 후보의 전략이 통한 것으
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7
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제
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
보가 임기 2년의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번 전당대회는 이른바 ‘명청대전’으
로 치러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
한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친명(친이재명)
계를 대리했고, 전임 당 대표인 정 후보는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통합
을 외치며 민주당의 전통 코어 지지층을
친청(친정청래)계로 결집시켰다.
승부를 가른 곳은 민주당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호남이었다. 호남의 지역 순

회 경선에서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엇치락
뒤치락하며 호각세를 보였으나, 민주당
의 전통 지지층이 밀집한 호남에서 김 후
보가 정 후보를 24.89%포인트(p) 차로 앞
서며 승기를 잡았다. 호남 순회경선이 끝
나자 두 후보의 누적 득표율 차는 14.07%
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김 후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이 포함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
공시킬 것”이라고 했고, 전북 새만금의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띄우며 “미스터 새
만금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후보는 전당대회 당일 정견발
표에서 “해방 100년, 민주당 100년, 대한
민국 황금시대를 열 수 있는데, 그 중심
기관자인 당정관계가 흔들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릴까봐 절박하다”며 “제가
처음 국회의원 나왔던 92년 이후 34년 동
안 어떤 선거도 이번처럼 절박하지 않았
다. 우리 당과 정부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미리 간파하고
사실상 호남에 상주하며 유권자를 만난
가운데 호남 당심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
한 신뢰를 재확인했고, 지역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당권 주자를 지
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빌게이츠, 총수들 면담… SMR 협력 구체화

최태원 회장과 원전개발 사업 점검
SK이노, 美 케머러 1호기 등 확대
HD현대, 美 SMR 진출기반 넓혀

국내 원전 기업들이 테라파워의 차세
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중심으
로 사업 개발과 기자재 공급, 상용화 협력
을 확대하고 있다. 초기 프로젝트에서 확
보한 제작 실적을 후속 상용 사업의 수주
와 매출로 연결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
지를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지
난 14일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
의 방한을 계기로 나트륨 SMR 사업 협력
을 구체화했다.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
워와 국내외 사업 개발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고 HD현대와 현대건설은 원자로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산에너지
는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 1호기의 핵
심 기자재 제작 계약을 맺었다.
<최태원·빌 게이츠, 1년 새 두 번째 회동>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빌 게이츠 의장
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 선혜원
에서 만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원전
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을 점검했
다. 지난해 8월 SMR 기술 개발과 상용화
방안을 논의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HD현대

양측의 협력은 2022년 SK이노베이션
과 SK(株)가 총 2억5000만달러를 공동 투
자해 2대 주주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이
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지분 투자 중심
의 관계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케머러 1호기와 후속
상용 프로젝트 참여를 늘리고 국내에서
는 ‘K-나트륨 SMR’ 사업모델과 공급망
을 구체화한다.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
시아 등에서는 테라파워와 신규 프로
젝트를 공동 개발한다.
나트륨 SMR은 SK그룹의 에너지·AI
사업과도 연계한다. SK이노베이션의 L
NG·전력사업과 SK온의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결합하고 SK하이닉스

의 AI 반도체, SK텔레콤의 데이터센터·
AI 인프라까지 연결해 그룹 차원의 ‘AI
풀스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HD현대·두산에너지·美 SMR
공급망 공략>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빌 게이츠 의
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
(CEO),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도 지
난 14일 만나 육상 원자로 상용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합의한 테라파워의
원자로 기술과 HD현대의 주기기 제조 역
량, 현대건설의 설계·조달·시공(EPC) 경
험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점검했다.
HD현대는 2024년 12월 원동형 원자로
용기를 수주한 데 이어 올해 5월 주기기
핵심 설비 제작·공급의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됐다. 후속 발주에 대응해 연간 2
~3기의 원자로 용기를 공급할 생산체계
도 구축한다.
두산에너지는 원자로 보호용기와 지
지구조물, 내부구조물 등 3종을 케머러 1
호기에 공급한다. HD현대가 원자로 용기를
맡은 데 이어 두산에너지도 주요 구조
물 제작에 참여하면서 국내 기
업이 공급하는 기자재 품목이
늘어났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文 “與 전당대회 보며 큰 우려…단결은 승리, 분
열은 곧 패배”
▲‘5·18 재조명 포럼’ 이진숙 당 윤리위에 제소
“중징계 내려야”
/사진 뉴시스

▲대통령 지지율 43.0% ‘취임 후 최저’…5주째
하락
▲추석 연휴 5년간 화재 2077건…비상구 폐쇄 집
중 단속

▲거제 ‘물폭탄’ 1명 사망·4명 부상…신고 838
건
▲한국 모범이라더니…“美 한미훈련 축소, 기존
태도와 대조적”